

- 주요 뉴스: 유로존 2월 근원 소비자물가 발표 예정, 고물가 우려 지속 가능성 등에 주목
 - 미국 재무장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추가 노력 필요하지만 경기 연착륙 가능
 - 독일 중앙은행 총재, ECB는 3월 이후에도 큰 폭의 금리인상이 요구
 - 중국 상무부, 경제성장을 위한 소비확대 추진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2.7%], 달러화 강세[+2.3%], 금리 상승[+13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 등이 주요 원인
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 증시와 유사한 이유 등으로 1.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경제지표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4%, 1.7%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최종금리 상향 가능성 등이 영향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0bp 상승
- ※ 원/달러 환율(주간) 0.4% 상승, 한국 CDS 상승

		2/24일	2/17일	전주말대비			2/24일	2/17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970.0	4,079.1	-2.67%	국채 금리 10y	미국	3.94%	3.81%	13bp
	유럽	457.70	464.30	-1.42%		독일	2.54%	2.44%	10bp
	중국	3,267.2	3,224.0	1.34%		영국	3.66%	3.52%	14bp
	일본	27,453	27,513	-0.22%	CDS 5y	한국	45bp	43bp	2bp
	한국	2,423.6	2,451.2	-1.13%		중국	74bp	65bp	9bp
환율	달러지수	105.26	103.86	2.31%	위험 지표	EMBI+	383	393	-10bp
	유로화	1.0548	1.0695	-1.37%		VIX	21.67	20.02	8.24%
	엔화	136.48	134.15	-1.71%		WTI유	76.32	76.34	-0.03%
	위안화	6.9601	6.8686	-1.31%	원자재	구리	395.2	410.9	-3.82%
	원화	1,304.8	1,299.5	-0.41%		금	1,811.0	1,842.4	-1.7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유로존 2월 근원 소비자물가 발표 예정, 고물가 우려 지속 가능성 등에 주목

- 3/2일 유로존 2월 소비자물가(CPI)가 발표될 계획. 블룸버그 등은 헤드라인 CPI의 연간 상승률은 8.1%를 기록하여 전월(8.6%) 대비 하락을 예상. 하지만 근원 CPI의 연간 상승률은 5.3%를 나타내 전월과 동일할 것으로 추정. 이는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가 대부분 에너지 가격 하락에 기인했기 때문
-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역대 헤드라인 CPI의 상승률은 에너지 디스인플레이션 및 그에 따른 영향으로 상당한 수준의 하락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되지만, 근원 CPI 상승률의 경우 매우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Barclays의 Iaroslav Shelepko)
-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ECB는 통화긴축을 강화해야하는 상황에 직면. 에너지 가격 하락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고려 시 ECB 인사들의 금리인상 요구는 금년 여름까지 이어질 전망(Bloomberg Economics의 Maeva Cousin)
- 최근 Deutsche Bank는 ECB의 최종금리(수신금리: 현재 2.5%) 전망치를 3.75%(6월)로 제시하며 기존보다 0.50%p 상향. 이번 조정은 예상보다 양호한 경기회복과 최근 ECB 매파 인사들의 발언 등을 반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추가 노력 필요하지만 경기 연착륙 가능

- 옐런 장관은 최근 인플레이션 수준이 매우 높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심각한 경기침체나 큰 폭의 실업률 상승을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주택경기의 부진이 인플레이션 제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양호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 피력

■ 미국 1월 신규주택판매, 10개월래 최고치. 다만 금리상승 등은 주택경기 회복 저해

- 1월 신규주택판매는 연환산 67만채를 기록하여 전월(62.5만채) 및 예상치(62만채) 상회. 전문가들은 주택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여러 징후들이 있다고 평가. 다만 최근 모기지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주택경기 회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 대통령, 중국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휴전 방식은 비합리적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휴전 방식이 러시아에게만 이득이라고 평가.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화를 통한 휴전을 제안하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언급을 피했고, 대러 제재도 반대

■ Allianz의 모하메드 엘-에리언, 금융시장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의구심

- 모하메드 엘-에리언 경제 고문은 물가지표들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떨어뜨리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경제에 막대한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

■ 독일 중앙은행 총재, ECB는 3월 이후에도 큰 폭의 금리인상이 요구

- 나겔 총재는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상당히 높기에 3월 이후에도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시장에서는 ECB가 이미 예고한대로 3월에 0.50%p의 금리인상을 결정하고, 그 이후 여름까지 0.75%p의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 다만 일부에서는 금리가 제약적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

■ IMF, G20은 취약국 부채조정에 이견. 암호화폐의 법정통화 지위 부여에 부정적

- 기오르기예바 총재는 일부 취약국의 부채조정 관련 주요 채권국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발언. 한편 암호화폐 관련 대응 지침을 공개.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법정통화 혹은 공식화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

■ 중국 상무부, 경제성장을 위한 소비확대 추진할 방침

- 1월 국내 소비시장이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방역 등에서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고, 소비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 한편 시장 일부에서는 중국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내 부동산 위험과 글로벌 수요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회복의 질과 속도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한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27 현지시각 기준)

- 연준 제퍼슨 이사, ECB 레인 이사, 일본은행 총재 지명자 우에다 강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투자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 - WSJ

(Investors Are Bracing for Surge in Market Volatility)

- 미국 주가는 1월에 경기 연착륙 기대 등으로 상승. 그러나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변동성지수(VIX)가 22를 나타내 연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일부에서는 3월에 7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 이는 미국·유럽의 인플레이션 반등 및 이로 인한 금리상승 등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에 기인
- 국채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증가. 특히 2년물 국채금리(2/24일 4.81%)는 '07년 이후 최고 수준. 국채금리 상승은 주가 상승에 부정적. 한편 단기 양도성예금증서(CD) 수요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인데 이는 위험회피 성향 강화를 의미

■ 중국, 자국 경제의 '일본화(Japanification)'에 직면 - Financial Times

(China's economy is looking at a new wave of Japanification)

- 씨티그룹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점차 일본 경제의 특성을 닮아가는 현상이 발생. 구체적으로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장기 주택가격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최근 인구가 감소하면서 동일한 사태를 겪을 가능성. 특히 주택가격 하락은 잠재적으로 중국 은행시스템의 위험을 증폭시킬 소지
- 또한 일본이 199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업은행의 간접적인 자금공급 확대로 심각한 자산가격 거품을 겪은 것처럼, 중국도 금융시스템에서 은행권의 간접적인 자금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 인민은행은 직접 공급확대 기능도 강화
- 일본이 1980년대 미국과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갈등을 겪었는데 최근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심화. 일본에서 고성장 이후 가계와 기업의 부채증가 및 장기 디레버리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 역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

■ 중국의 채무조정 노력 부재, 미국에 부담으로 작용 - Financial Times

(China's foreign loans are becoming a US burden)

- 저소득 국가의 채무조정 관련 중국은 세계 주요국의 구제노력에 동참하기보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 이는 IMF 등과 같은 글로벌 대출기관의 최우선 채권자 지위 상실 및 이에 따른 채무국의 비용 증가를 초래
- 중국은 자국 내 여러 기관이 개입되어 일관적인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 그러나 당국이 '17년 해외대출 회수 관련 신속히 대응했음을 고려 시 중국은 불안정한 양국 간 직접대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구제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중국, 미국의 부채상한 문제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 - 블룸버그**

(China Has a Debt Ceiling Problem of Its Own)

- 금년 중국 지방정부는 심각한 부채위기에 직면할 가능성. 부동산 침체,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토지판매 감소(-23%), 지출 증가(6%), 중앙정부 지원 축소 등이 발생하면서 지방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6%까지 상승(12년은 29%에 불과)
- 반면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은 24%로 낮지만 최근 지방정부의 이자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관련 수정이 요구. 부채상한을 확대하지 않아 지방정부의 부채위기가 현실화 될 경우 부동산 개발업체 채무불이행보다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미국 채권가격, 장기적 측면에서 상승 기대 여전히 유효 - 블룸버그**

(Bets on the Year of the Bond Are Still on Even as Losses Re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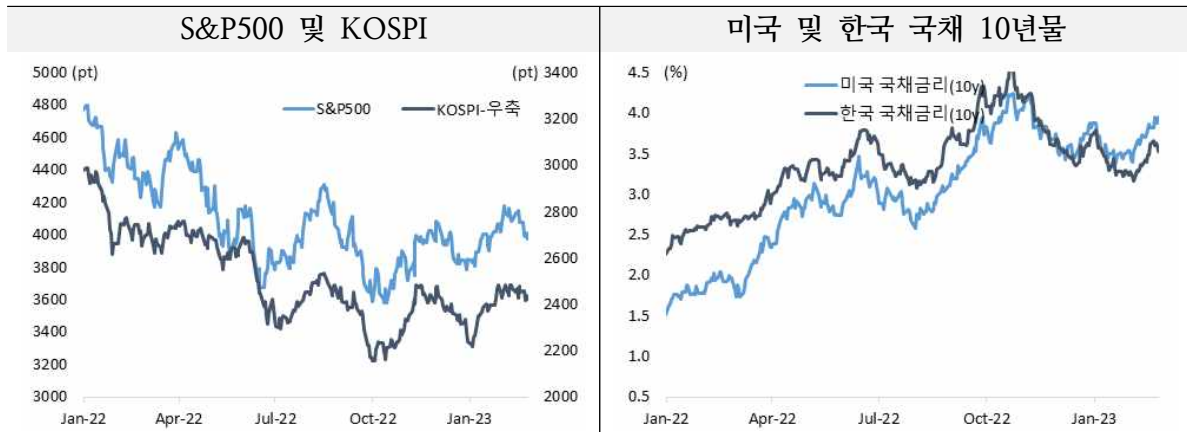
■ **중국 경제회복, 가계 지출 및 기업 투자 확대 여부가 관건 - WSJ**

(Covid-Era Savings Are Crucial to China's Economic Recovery)

■ **신흥국 통화 가치, 연준의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하방압력 증가 - 블룸버그**

(Emerging Markets Will Have to Weather Another Dollar Hurra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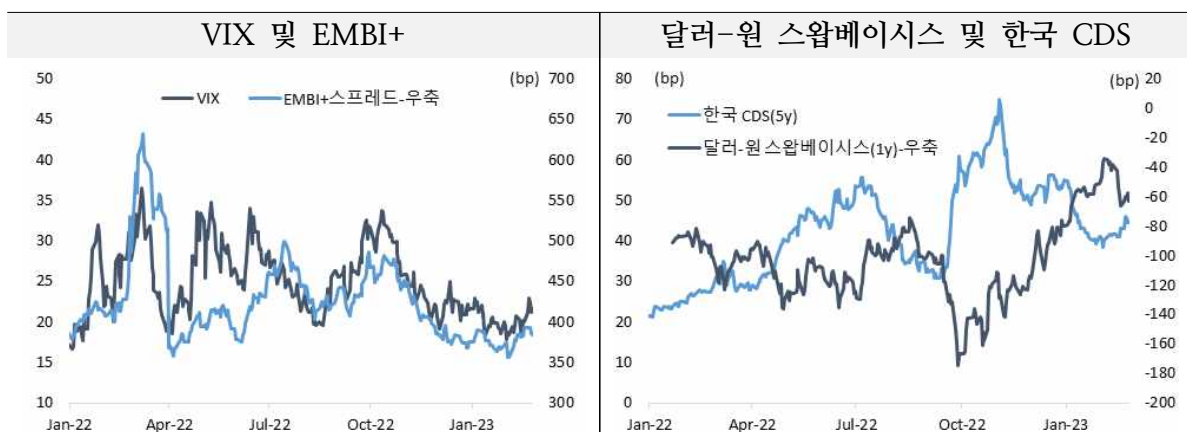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